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

리 래 진

새 세기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도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또다시 해외팽창야망을 드러내놓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4권 145페이지)

21세기를 또다시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약탈의 세기로 만들어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은 우리 나라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다.

특히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은 새 세기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여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서 그 진면모가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전쟁국가, 세계정복을 추구하는 호전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는 행위로서 그것이 내포하고있는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다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와 《친선》, 《협력》에 대하여 떠들어대지만 이것은 모두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오늘 저들이 강행추진하고있는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책동 역시 《적극적평화주의》와 《국제적공헌》 등을 위한 《긍정적》인것으로 묘사하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내고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왔으며 명치유신 이후부터는 극도의 침략성과 호전성을 가지고 전쟁만을 일삼아온 국가이다.

일제의 침략행위로 하여 지난날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인류는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조선강점기간 일제는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살인적인 강제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성노예로 만드는 반인륜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침략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번영》하려는 일본의 강도적야망은 20세기나 21세기나 변함이 없다.

랭전시기 경제적해외팽창을 실현한 일본반동들은 랭전의 종식과 함께 해외팽창의 확대와 그 보호를 구실로 군사적해외침략의 길로 내닫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의 미명밑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을 조작하고 페르샤만지역, 캄보쟈, 모잠비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력사적으로 고질화되고 악습화된 일본의 해외팽창야망은 극도에 달고있다.

미국에서 9.11사건이 터지자 일본반동들은 때를 만난듯이 《대미지원》의 구실밑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전쟁법》들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인디아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이 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작전을 맹렬히 벌리었다.

이러한 속에서 2015년 9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정식 법으로 성립되었다. 《안전보장관련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리고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되었다.

《평화》와 《공헌》을 부르짖으며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쓰는 상투적수법이다. 지난 시기에도 일본은 《유럽인들로부터의 아시아인의 해방》, 《아시아의 공동번영》 등의 간판밑에 전대미문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었다.

오늘도 일본반동들은 《국제협력》, 《재해방지》, 《세계평화유지》, 《반테로전》 등 여러 가지 구실을 내들고 기회를 엿보다가 불의적인 무력공격을 단행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무력공격의 장애물이 바로 《자위대》무력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있는 일본의 헌법이다.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이 이제 와서 헌법을 개악하여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한다면 일본의 무력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에 편승하여 세계의 그 어디에서든지 침략행위를 감행할수 있게 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일본반동들의 침략책동은 날로 현실화되어가고있으며 언제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가 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격화시킴으로써 세계대전의 근원으로 된다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행위로 하여 초래되고있는 반동적인 군비경쟁은 인류의 문명과 복리증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할뿐만아니라 커다란 경제문화적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부터 국제무대에서는 이미 국제련맹이 활동하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이전시기부터 비록 위선적이기는 하였지만 군비축소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며 유엔이 창립된 후 제2차 세계대전의 파국적후과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전반적인 군비축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특히 동서랭전의 군사적대결이 강화되고 군비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유엔에서는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철폐문제가 본격적으로 상정,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군비경쟁을 억제시키기 위한 론쟁은 오늘에 와서도 커다란 관심속에 계속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제의 침략적인 대결정책으로 하여 이미 랭전시기를 방불케 하는 치렬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더욱 격화되고있다.

일본의 군사비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여왔다. 2015년에만도 군비예산은 430억US\$에 달한다. 일본은 《일미방위협력지침》이 개악된 이후 총 48억 9 000만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미국으로부터 최첨단무기들을 구입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군비지출에 토대하여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장비하고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아시아에서 미국 다음가는 이지스구축함을 가지고있으며 록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이미 방위의 한도를 넘어서고있다. 군사기술적측면에서 볼 때 해상《자위대》는 주력함선들의 대형화, 공격화, 정보화를 끊임없이 실현하는 한편 첨단수준의 함선들을 계속 건조하고있다. 항공《자위대》는 초음속순항비행능력과 높은 기동성, 스텔스능력과 종합전자체계를 다 갖춘 전략공격형전투기들과 다목적군용직승기들로 무장하고있으며 록상《자위대》역시 땅크를 비롯한 중무기의 현대화와 함께 공중과 지상에서 전투장비의 일체화를 실현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군비증강책동은 조선반도주변 대국들로 하여금 커다란 경계심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는 길로 나가게 함으로써 이 지역이 치열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어가게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이 동북아시아지역이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고있으며 이로 하여 이 지역에서 무서운 무장충돌이 일어날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아시아지역 군비경쟁에서 가장 야심적인 나라로 략인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새 세기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동북아시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있으며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세계적인 핵보유국, 군사대국들이 최대로 밀집되어있고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어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만일 대국들사이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재난을 불러올것이며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것이다.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군국화책동의 일환으로서 일본인민들을 또다시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 일본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재촉한다는데 있다.

《집단적자위권》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일본의 군국화책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그것은 일본인민들과 일본자체를 파멸과 위기에 몰아넣는다.

침략전쟁은 그것이 어떤 명분으로 진행되는 관계없이 다 반동적지배계급의 침략적목적에 따른것으로서 자국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자국민들에게도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다.

20세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에 의하여 일본의 자주적발전은 심히 억제되었으며 인민들은 극심한 생활처지에서 허덕이였다. 게다가 수많은 청장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무리죽음을 당하였고 무고한 인민들은 전쟁의 희생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2월이후에만도 이오섬과 오키나와섬에서 수십만의 일본군과 인민들이 무리죽음을 당하였고 도쿄, 오사까, 고베 등 주요도시들과 지방의 60여개의 도시들에서 공습으로 67만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공장, 기업소, 학교와 병원, 주택들이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1945년 3월 10일 하루에만도 도쿄의 주민들이 공습에 의한 폭탄세례를 받아 무리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수는 무려 1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일본인민들은 지난날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침략전쟁이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가로

막고 자신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하기에 《평화헌법》제정당시 침략과 전쟁의 상징이며 기둥이었던 《천황제》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후에도 나라를 군국화하고 《자위대》의 무력을 증강하려는 반동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의 《집단적자위권》획득을 위한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더 우심화, 로골화되고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무릅쓰고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집단적자위권》획득책동은 결국 일본전체를 침략전쟁의 불도가니속에 밀어넣을뿐아니라 일본인민들에게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범죄행위이다. 이것은 일본자체를 파멸의 길로 재촉하는 어리석은짓이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크고작은 전쟁들을 기록하고있으며 이러한 전쟁들에서는 례외없이 전쟁의 불을 지른자들이 그 불에 타죽고말았다.

일본제국주의도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삼다가 응당한 징벌을 받았던것이다. 그러한 일본이 오늘 지난날의 패전의 비참한 교훈을 망각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면서 또다시 아시아와 세계를 위협하고있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이상 내들었던 《평화국가》의 위장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마침내 전쟁국가, 세계정복을 추구하는 호전적지배주의세력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획득책동이 바로 저들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자살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력사의 쓰라린 교훈과 변천된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본반동들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은 반드시 참혹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밟개버릴것이다.